

사이프러스, 부가가치세율 인상

그리스계인 사이프러스 정부는 EU 가입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EU와 제도를 일치시키는 조치로서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였다. 2002년 7월 1일 10%에서 13%로 인상된 부가가치세율은 2003년 1월 1일 다시 15%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회는 전면적인 세법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개정 세법이 곧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로 사이프러스는 EU 가입에 필요한 31장의 조건 중 28장을 충족시켰으며 나머지 요건도 2002년 말의 EU 가입신청국 심사 전에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분단 상황에서 (남)사이프러스만의 EU 가입에 대해 일부 EU 회원국들은 터키의 입장을 감안하여 가입 승인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터키계인 북사이프러스와의 통합 협상이 부진한 상황에서, 분단 상황이 계속되어도 (남)사이프러스만의 EU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1999년 12월 EU의 헬싱키 정상 회담에서 약속된 바가 있으며 그리스도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조건으로서 (남)사이프러스의 EU 가입을 내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프러스의 인구는 남쪽이 67만명, 북쪽이 20만명에, 면적이 남한의 1/10에 불과하나 GDP는 2001년 100억 달러를 넘고 1인당 GDP는 남쪽은 13,000 달러, 북쪽은 8,000 달러에 이른다.